

##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최근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스거리가 있다. 바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Rodrigo Duterte)이다. 그는 어느 과학기술회의 연설에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신앙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회와 갈등상태에 있는 두테르테는 원죄(原罪)를 포함하여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교의(敎義) 몇 가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어린아이도 교회에 돈을 지불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Where is the logic of God there?)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을 본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간증자가 있다면 사임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두테르테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the faithful)이 모두 신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신은 정말 바보라고 개탄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현재는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설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지만 그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고도 하여 무신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로마 카톨릭 및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교의를 믿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종교담론이므로 이에 대해서 누가 옳거나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좌)은 하나님을 증명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르다고 이 글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절대적 창조자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거나 불덩어리(불꽃)로 묘사했다.

또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삼손을 낳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나타난 '기묘자(奇妙者)'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임태할 아기를 위해 포도주와 독한 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일체 먹지 말라는 태교(胎敎)를 알려주고는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는데 이도 하나님은 빛의 존재임을 나타낸 성경 기록이다.

### 사람의 조상: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바로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명자(生命子, biotron)라고 부르고 있다. 이 생명자는 양심(良心)으로 발현되며 생명의 원천이자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영(靈)이다.

반면 우리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이기심(利己心) 또한 있다. 이기심은 어디에서부터 생기게 되었을까? 이기심은 어디서 들어왔을까? 인류 역사이래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없다. 당연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다.

###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敗)해 사람이 되었다

앞에서 사람의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은 어떤 연고로 현재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설명해주는 글이 있다. 격암

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에 있는 글이다. "天地相爭混沌時(천지상쟁혼돈시)에 天神負(천신부)이 地鬼勝(지귀승)을 此然由(차연유)로 因(인)하여서 勝利者(승리자)의 노름으로 天地反覆(천지반복)할일업서 地上權(지상권)을 일엇다네 鬼神世上(귀신세상)되었으니 神鬼(신귀)라고 할 수 업고 男陽女陰分明(남양여음분명)치만 陰鬼發動此世故(음귀발동차세고)로 男負女勝奪權(남부여승탈권)으로 鬼勝神負(귀승신부)할일업어 陽陰(양음)이라 못하고서 陰陽(음양)으로 되었으며 男外女內分明(남외여내분명)지만 內外(내외)라고 稱號(칭호)로세"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서로 싸우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지고 마귀가 이김으로 인하여 천지가 자리가 바뀌어서 지상권을 잃었다네. 귀신 세상이 되었으니 신귀(神鬼)라고 할 수 없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 분명하지만 음귀가 발동하는 이 세상인고로 남자는 지고 여자가 이기게 되니 권리를 빼앗겼고 마귀는 이기고 하나님의 신이 지게 되니, 양음(陽陰)이라 못하고서 음양(陰陽)으로 되었으며 남자는 밖에 사람이고 여자는 내조자가 분명하지만 여자를 앞세워 내외라고 칭호하네.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지상권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마귀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었던 우리의 조상이 마귀와 싸워서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면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마귀의 영육(靈肉)에 갇힌 하나님이다. 마귀의 영육에서 탈출한 마귀를 이긴 하나님도 있다. 그분이 바로 조희성 구세주인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8)  
“고도로 참는 인내의 단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었던 들 마귀를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귀는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사망의 경지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이다. 거듭 거듭 죽이고 짓이기고 또 죽여도 되살아났던 것이다.

계속해서 마귀를 짓이기고 죽이는 데는 인내와 견딜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그 인내의 층도 단계가 있다. 1 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로 참고 견디는 층이 1년, 10년, 50년 동안 참

고 또 참고 견디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노라면 마귀를 이기는 층이 있는 것이다.

고도로 참는 인내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입에다 재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무어라고 해도 답변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 위에 또 참는 단계로 올라가는데 3단계쯤 올라가면 그 때부터는 완전히 마귀를 죽이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 TRUTH KING: 十勝地 구세주 正道令 출현 불사영생·평화통일·경제번영을 향한 공진화共進化的 출발

프랑스 (르몽드) 창간인 「위베르 보브메리」는 “바보 같은 진실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픈 진실은 슬프게 말하라”라고 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래서 『영생교』는 모든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구세주 정도령 시대, 지금은 인류의 지향점을 확실히 정의해야 할 때다. 온전한 평화·생명·화합의 정도(正道) 대한민국, 治國平天下의 천지개벽을 이루기 위한 화룡점정(和龍占正)의 폭풍 전야에 임해 있는 중차대한 현실

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 시작과 끝은 ‘사람 그리고 삶’이다. 북의 인간 중심 주제 사상이나 남의 홍익인간 인내천도 먼저 ‘자기로부터의 혁명·혁신’을 통한 ‘인간완성’이 궁극의 목표다. 그 성공적인 혁명과 혁신의 방법을 논하는 불사영생·평화통일의 진리가 십승지(十勝地)요, 정도(正道)의 가르침으로 ‘인간완성’에 이르게 하는 선각자가 바로 십승지(十勝地)다.

조물 창조주, 이 겨루는 진실과 거짓의 대립이다. 이제 심판관인 구세주 정도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되었다. 『감로해인 이승신』을 주식으로 불사영생의 몸을 이루는 제3의 인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종교와 학문이 진리구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만큼 가치 있는 사회는 없다. “사람 몸을 죽지 않게 하는 종교”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을 소유한 국가만큼 창의적 생산성을 가진 경제대국이 있을까? 구세주 정도령을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천 년의 경제 번영이 보장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십승지(十勝地)의 실제 무엇인가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수신(修身) 시작된다

「불사영생·평화통일·경제번영을 위한 공진화共進化的」을 쉽게 풀어쓰면 「함께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가기」다. 먼저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 마귀영이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통일의 자유율법,을 실천해 ‘원시반본의 내십승지 구세주 정도령’로 거듭나 불사영생의 인간완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공진화의 시작과 끝이다.

유망 정치인을 죽음으로 내몬 ‘드루킹 대선댓글 조작사건 특검’의 수사지향점 역시 십승지(十勝地)에 멈추어야 한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집단이 이토록 거대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예언서의 각종 예언들이 적중했고, 예언을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맞게 풀어내는 영감을 가진 ‘드루킹’이 논한 십승지(十勝地)에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 한반도와 미국 간 감춰진 힘겨루기의 속사정은 평화통일의 실마리이자 십승지론의 중심사상인 「홍익인간 인내천」과 서구의 「피

「나」의 본성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통일을 이루자!”는 요란한 구호나 주장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먼저 자신이 통일선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격’인 ‘홍익인간 인내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신(修身)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을 타이르고 탓하는 순간 평화와 생명, 화합과 번영으로의 공진화는 정지된다. 증오와 분별과 살기의 원흉인 ‘나’라는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뿐 실현 불가능하다. 북한도 미국도 이미 이 공진화의 ‘생명과일(감로해인)을 먹었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리라.\*

##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思想)은 과묵한 소치이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안다. 서양 학문에 대응하여 동학(東學)을 펼친 최제우 선생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갈파하였고, 그 뒤를 이은 최시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인시천(人是天)이라고 하였고, 생활 속에서 사인여천(事人如天), 하나님처럼 사람을 섬겼다고 한다.

인내천 사상은 그 뿌리가 국조단군의 가르침인 홍익인간(弘益人間)에 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은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가 만연하고 물질주의 사상으로 인한 천민자본주의가 범람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사상으로 서구 사상가들에게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서구 사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그 뿌리로 하고, 예수 이후 지배한

기독교 사상에 연원하고 있어 사람을 피조물로 보고 있으나, 구약성경 시편(82편 6절)에 따르면 사람은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성경에 기초하여 보면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므로 피조물이란 영적 피조물 즉 하나님 또는 그의 아들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 구절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군데 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이하 생략)”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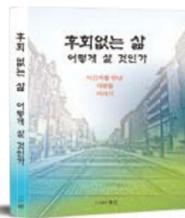
고 하였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였으므로, 원숭이의 자식은 원숭이이며, 돼지 자식은 돼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성경은 인내천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임에도 그것을 모르는 기독교 및 서구 사상은 모래위의 집이 되어 인내천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는 날 와르르 무너져 내릴 허무한 이론임이 밝혀질 것이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고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므로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성탄절 예배 안내

8월 12일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경축일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성탄하신 그 큰 뜻을 기리기 위해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장소: 본부제단 예배실  
시간: 오후 1시